

사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통일유훈을 받들어 삼천리에 통일강국을 기어 올리며 새 우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돌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민족분열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해방직후 유엔의 간관 밑에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어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으로 온 겨레를 불러일으키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고 1970년대에 격폐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고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을 채택하게 하여 조국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열어놓으신분도 수령님이시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어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다. 3대원칙은 북과 남에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우리 나라의 현실적 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조국통일3대원칙이 제시됨으로써 나라의 통일 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마련해주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속망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조국통일3대원칙이야말로 조국통일의 기치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투쟁강령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세우시어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시었고 더욱 강화하시였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그 위력은 민족대단결에 있다. 주체적통일력량이 튼튼히 마련될 때 조국통일위업의 승리가 확고히 담보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적단결의 기초로 삼으시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키는것을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내세우시였으며 넓은 도량과 아량있는 포용력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수령님께서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라는 민족단합의 구호를 제시하시어 각계각층의 조선사람들이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로고를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제 78(1989)년 4월

마음으로 조국통일위업에 기여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의 사상과 리념,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애와 민족애는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 파견하시어 한 힘의 원천이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어 북과 남, 해외의 통일력량을 묶어세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하고 조국을 통일하려는 민족의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진 환경속에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을 망라한 범민족대회가 열리고 온 겨레의 통일의지를 대변하는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이 탄생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의 결성은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조국통일운동을 보

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데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이다. 오늘 통일애국의 주체적력량은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적범위로 확대강화되고 더욱 굳게 결속되고있으며 사대매국적인 분열주의 세력을 압도하면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선적적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공화국의 조국통일로선의 정당성이 세계 각국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지와 연대성이 강화되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통일 문제를 두고 어느 하루도 심려하

지시 않은 날이 없으며 어느 한때도 편히 쉬신적이 없으시었다.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바치오신 수령님께서 위대한 조선인민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분명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적문건에 마지막친필을 남기시었다.

《 김 일 성 》

1994. 7. 7. 수령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불멸의 친필에는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오신 공화국의 조국통일로선의 정당성이 세계 각국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지와 연대성이 강화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통일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립하시어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관철을 위한 튼튼한 초석을 마련해주시었다. 그리고 뜨거운 애국의 의지를 안으시고 두 차례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시어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었다. 한없이 숭고한 인품과 하늘같은 덕망으로 남녘의 각당, 각파, 각계인사들, 동포들과 화를없이 만나시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시고 민족문제해결에서 지침으로 되는 고귀한 가르치심과 명쾌한 해답을 주시던 장군님의 인자하신 모습은 오늘도 우리 겨레의 가슴을 세차게 울리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의 길

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우리 겨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은 통일을 념원하는 우리 민족모두가 받들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질수 있어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리장에서는 변화가 있을수 없

다. 온 겨레는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과 유훈이 담긴 조국통일3대원칙의 빛나는 구현이다. 지나온 수년간의 나날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그리행을 거부하면 북남관계가 파국에 처하게 되고 종당에는 총들과 전쟁밖에 일어날것이 없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하고있다.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는데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밝은 길이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변영의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거족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철저히 설 때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자주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민족의 운명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내외호전세력은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으며 이로 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변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함시 조성되고있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난 핵재난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오늘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또 한번의 백두산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관철하여 겨레에게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선물로 안겨주시려는 확고부동한 의지와 결심을 지니시고 그이께서는 판문점에 대한 력사적인 시찰도 단행하시였으며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변영을 바라는 사람이란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지고도 인내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는 뜻깊은 연설도 하시었다.

올해에 북남관계개선의 밝은 앞길을 밝혀주는 그의 력사적인 신년사가 발표되고 뒤이어 공화국 국방위원회 의 중대제안, 공개서한이 울려 퍼졌으며 얼마전에는 또 국방위원회 특별제안이 나온것은 어떻게봐도 조선반도에서 불신과 대결의 불미스러운 력사를 끝장내고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안아오려는 공화국정권의 일관한 립장과 성의있는 노력을 잘 보여주고있다.

겨레가 가는 통일의 앞길에 비록 난관과 우여곡절이 있지만 절세위인이 계시오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이 우리 민족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기에 자주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신심드높이 통일대행진을 거족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간절한 념원, 전체 조선민족의 절절한 소망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절절한 경모심이 온 나라 강산에 차 넘치는 7월의 날과 날이 흐르고 있다.

지금 사람들은 얼마나 위대한 분을 수령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는가를 7월의 하늘아래서 더욱더 가슴뜨거이 절감하고 있다.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 나라와 민족앞에 영구 불멸할 업적을 남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생전의 뜻과 념원은 온 민족이 통일된 강토에서 화목하게 살며 자자손손 부락하는 것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각까지 하나된 민족, 하나된 조국을 위해 온갖을 강그리 불태우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아버지, 조국통일의 구상이시다.

일찍이 10대의 어린 시절에 조국해방, 민족해방의 길에 나서신 그이께서는 반일독립을 위한 전민족의 단합을 실현하시어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조국해방의 민족사적업무를 성취하시었다.

20성상을 헤아리는 간고한 항일 혁명을 벌리시던 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묶어세우는 대단함의 경륜을 펼쳐시여 조국을 해방

하신 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업적은 오늘도 겨레의 마음속에 길이 새겨져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피어린 길에서 수령님께서 그려보신 조국은 하나의 삼천리강토였다.

주석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3천만가운데 조국해방은 조국통일3대헌장의 자자구구에 불행과 고통을 그 무엇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기나긴 세월 그이께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기울이신 불멸 불류의 로고와 심혈, 쌓으신 업적은 조국통일3대헌장의 자자구구에 력력히 어려웠고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조국통일관련문건에 남기신 친필에도 그대로 깃들여있다.

《 김 일 성 1994. 7. 7. 》 수령님의 체취스민 글발을 새

긴 관문점의 친필비는 오늘도 스무해전 그 날에 북남최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우리 나라의 통일이 머지않아 이룩될수 있다고, 우리 나라가 통일되면 몇몇사이에 부자의 나라로 될수 있다고 조국통일을 락관하시며 불면불휴, 불철주야의 심혈을 기울이신 수령님의 로고를 길이 전하고 있다.

언제인가 관문점을 시찰하시면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수령님의 친필은 불과 아홉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담겨진 뜻은 수천수만자의 비문으로도 대신할수 없다고 하시었다.

수령님의 필생의 뜻과 의지가 빛발치는 친필을 보면 그이께서 해쳐오신 통일장정의 날과 날이 파도쳐온다.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를 마련하시고 사상과 정경, 신앙과 제도, 주의주장의 차이를 초월하여 각계층 동포들을 민족대단합과 통일위업실현에로 불러일으키신 수령님의 열렬한 민족애와 조국애, 숭고한 도량과 덕망은 지금도 민족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 주고있다.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온 겨레를 민족단합과 통일실현에로 불러일으키신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고매한 언덕에 의해 최홍희, 문익환, 윤이상, 김성락을 비롯한 해외의 수많은 각계층 민족성원들이 통일애국의 길을 곳곳이 걸을수 있었다.

외세의 끊임없는 새 전쟁도발 책동으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격화되고있을 때 폭넓은 북남협상제안으로 자주적평화화실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시었고 외세와 남조선의 대국배축세력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으로 배격하시며 통일을 바라는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신 수령님이시었다.

그 날 평양을 방문한 남측의 고위정객들을 만나신 수령님께서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외세의 의존하여 해결하려 한다면 민족의 수치라고 하시면서 우리 민족끼리 접촉하고 대화도 하면 능히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다고 하시었다.

어느해인가 최덕신동포를 만나시었을 때에도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우리 민족자재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민족적문제이라고 하시면서 민족자주적립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의 힘으로 나라를 통일해야 한다고 하신 수령님이시었다.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 수령님께서는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면 불휴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었다.

하기에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우시고 그의 애국애족애민의 헌신적정모에 감복한 한 해외동포분필가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피력하시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년로한 몸이심에도 불구하고 37~38℃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속에서 온갖 피로도 잊은채 강행군을 하셨다.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왔을 때 서해감문 등 여러곳에 동행했고 장시간 회담도 하셨으며 북남최고 위급회담당자가 확정된 뒤에는 이제 통일을 위한 큰걸음을 떼는 것이리라 수많은 복잡한 문제

들을 다 풀어주시었고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서 현지지도도 하시어 수많은 일군들과 만나 담화도 하시었다.》

진정 민족과 통일을 위하여 가장 빛나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 수령님이시기에 태양의 위업이고 의지였다. 온 민족이 통일된 조국에서 화목하게 잘 살도록 하시려는것이 수령님의 뜻이었다고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수령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해야 한다고 하신 장군님이시었다.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3대 헌장이 구현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채택발표하시였으며 하나된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그이의 숭고한 뜻과 비범한 령도에 의해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장엄한

6.15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겨레의 통일운동을 진두에서 이끌고계시는 분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고 조국분열은 곧 매국이라고 하시며 진정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누구나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을 받들어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파감히 떨쳐나서야 한다고 하시었다.

오늘 6.15를 부정하며 역행하는 내외호전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은 약랄하고 집요하지만 겨레의 자주통일의 발걸음은 결코 가로막을수 없다.

통일되고 강성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모습은 먼 래일의 모습이 아니다.

온 겨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통일념원을 실현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이 땅에서 통일되고 부강한 강성국가로 기어이 일떠세우고야 맞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철

한 평 생 민 족 과 통 일 을 위 해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

사랑의 구원조치

아버이수령님께서 주제53(1964)년 여름 어느날 고기잡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던 남조선어민들을 구원해주시고 동포애의 정을 부여하신 이야기는 겨레의 마음을 뜨겁게 적셔주고있다.

그때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낚은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던 남조선어민들이 풍랑에 실려 우리측 령해에 표류해온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즉시에 해군함정들을 출동시켜 그들을 구원할때 대한 명령을 내리시었다.

눈물의 상봉

주제 63(1974)년 9월 어느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총련의 방문단을 비롯한 여러 대표단을 만나시었다. 대표단성원들을 만나신 그이께서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가, 백두산에는 가보았는가, 방문단에 15살난 어린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 다니기 힘들어 하지 않는가 등을 세심히 알아보시었다.

이윽하여 전체 대표단성원들앞에 이르신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을 둘러보시

어 아버지수령님께서 취해주시는 뜨거운 동포애적조치에 의해 사나운 풍랑속에서 구원된 남조선어민들은 어려운 생활난속에 부대끼며 생긴 증병들을 말끔히 털어버리게 되었으며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온정깊은 생일상도 받아안게 되었다.

다심하신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자기들을 따뜻이 돌봐주시는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에 남조선어민들은 목이 메었다.

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평양에서 다른 나라 대표단들도 자주 만나고 우리 나라의 여러 부문 일군들도 늘 만나지마는 일본에서 조국을 찾아온 동포들을 만나는데는 제일이 기쁘다. 사람들사이의 혈육의 정이라는데는 매우 깊은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동포형제자매들이 조국을 찾아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특히 조국에 온 동포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매우 설레이며

감개무량해지곤 한다. ...

그이의 말씀을 새겨들은 동포들의 눈가에는 격정의 눈물이 고여올랐다. 수령님께서도 격해오르는 심정을 다잡기 어려우시여 천천히 안경을 벗으시고 손수건을 눈가로 가져가시었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오늘 동무들을 만나니 기쁘기 한량없다고, 앞으로 조국을 통일하고 남조선에 있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며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더 클것이라고 하시었다. 그리고서는 호느낌소리가 점점 커가는 장례를 향해 진정하라고 손을 저으시며 혁명의 길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모두 잘 투쟁하여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완성하자고 말씀하시었다.

상봉으로부터 헤어질 때까지 시간은 눈물속에 흘렀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을 달래시며 오늘의 상봉이 너무나 기뻐 동무들이 눈물을 흘리고있는데 동무들이 그러니 나도 목이 메어 연설하기 어렵다고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본사기자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피눈물의 7월로부터 지난 스무해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생전의 위업과 뜻이 줄기차게 이어져온 날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인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수령님의 유훈이며 온 민족이 통일된 조국에서 화목하게 잘살도록 하시려는것은 수령님의 뜻이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수령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여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꽃피워야 한다.

대국상의 그 날에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다.

수령님의 위업을 계승완성하며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는데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속시켜야 한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평양을 방문

한 남녘의 문익환목사의 미망인 박용길동포를 만나셨을 때에도 먼저 가신분들의 뜻을 받들어 나라의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할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피력하시었다.

조국통일을 최고의 애국으로 여기시고 온 민족의 대단결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과 굳은 의지를 지니신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념대로 조국을 반드시 통일하여야 한다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였는데 나는 조국을 통일하고 통일된 조국을 우리 인민들에게 반드시 선물로 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조국통일에 대한 중대한 책임감을 안으신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라》와 같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전민족이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통일대강을 마련해주시었다.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민족단합실현의 보다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 장군님이시다.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사상과 정경, 신앙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도록 하시려는것은 장군님의 절대불변의 의지였다. 그이의 크나큰 로고와 현명한 령도에 의해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대원수님들의 한센의 념원이 깃든 조국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일시대가 밝아오게 되었다. 열화같은 동포애와 민족애,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신 장군님께서서는 자주통일시대의 격류에 몸과 마음을 합쳐 앞을 닦아주어 평양을 찾아오는 남조선 각계층 동포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6.15공동선언리행에로 고무격려하시었다.

삼천리강토에 자주통일의 열광이 세차게 일던 그무렵 남조선의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선생이 평양에 왔을 때였다. 그를 따뜻한 동포애로 환대하시며 건강도 널리하시고 기업형편에 대해서도 일일이 헤아리신 장군님께서서는 그가 민족화해의 길을 여는데 공적이 크다고, 그것이 앞으로 력사에 큰 장을 차지하게 될것이라고 크나큰 믿음과 평가를 하셨다. 그리시어 그가 원하는 문제들을 다 들어주었고 애국애족의 립장에 서 북과 남이 서로 협력을 잘해나가도록 할때 대하여, 우리 민족이 잘되고 잘살게 하자는 사람들과는 그 누구와도 언제나 손잡고 나갈것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셨다. 대기업가인 자기에게 베푸신 장군님의 하해같은 믿음과 도량, 인정미에 감복한 정주영선생은 후날 북을 방문한 소감을 러놓는 기자회견식상에서 《내가 세계를 다니며 장군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진짜 장군다운 장군은 김일성장군이 처음이다.》라고 진정을 토로했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해 평양행을 단행한 정주영선생에 대해서 사람들은 수령님시대의 강구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구동언이 채택되어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자주통

명영하신 김일성장군님을 만나시고 그이의 민족대단결정류에 반해 자신의 운명, 민족의 운명을 그이께 맡겼던것처럼 80고령의 기업가 정주영선생도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시고 그이의 위인적덕망에 매혹되어 그이께 민족의 통일번영이 달려있다는것을 절감하였던것이다.

북남상급회담을 비롯한 여러 갈래의 회담과 대화들이 이어지고 북남사이의 다각적인 협력과 교류가 활기있게 벌어진 사실, 평양과 서울, 금강산과 부산으로 각계층 동포들이 서로 래왕하며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치러 여겨의 마음속에 하나된 민족, 하나된 조국의 미래와 신심을 안겨준 이야기들은 지난 스무해의 갈피갈피에 새겨진 잊을수 없는 추억이다.

《이제 북남관계는 하나의 큰 산을 넘었다.》, 《력사가 만들어졌다.》고 러린 감동과 환희의 열광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운이 크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은 장강 반세기의 세월 모든 사색과 심혈,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실천으로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조국통일의 활로를 힘있게 열어오신 민족의 위대한 구상이시다.

근 70년을 헤아리는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통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대한 장군님따라 6.15시대를 맞이한것처럼 우리 겨레는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민족애와 숭고한 뜻, 조국통일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에서 통일시대의 앞날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림소영

통일애국의 뜻 어린 글발

그이께서는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어느 하루도 걱정하지 않은 날이 없었으며 어느 한때도 편히 쉬지 못하시었다. 통일의 길을 여시려 끊임없이 기울이신 그이의 사색과 로고, 쌓으신 크나큰 업적은 조국통일3대헌칙과 고려민주권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

각이 더 난다고, 분렬된 조국의 력사가 하루하루 깊어가는것이 가슴아프다고, 통일만 되면 자신께서는 10년은 더 젊어질것 같다고 하시며 생신날마저 쉬지 않고 시고 겨레에게 통일의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해 밤을 지새우곤하신 수령님의 모습을 우리 겨레는 잊지 못하고 있다.

친필이 새겨진 비가 세워져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두해전 그곳을 찾았을 때 수령님의 친필비를 보시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그이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추억깊이 더듬으시었다. 그러시고는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관문점

누 리 에 빛 나 는 래 양 의 모 습

7월이 왔다.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모든 것이 땅속속에 묻힌다고 하지만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거례의 사무치는 그리움은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욱 강렬해진다. 하기에 거례의 마음과 마음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끌려갈 달린다.

금빛 찬란한 대원수님이 빛나는 웅장한 돌대문을 지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경건히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는 사람들속에는 노동자, 농민, 과학자, 청년대학생, 인민군장병들도 있고 지역관리에서 온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도 있다. 그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격정을 터쳤다.

《아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사상과 령도에서도, 인품과 덕망에서도 온 거례와 인류의 흠모를 한몸에 받고계시는 위대한 태양이시다.》

위대한 태양! 동서고금에 후세에 이름을 남긴 위인, 명인들이 적지 않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처럼 태양으로 높이 떠날들린 결출한 위인은 일찍이 없었다.

돌이켜 보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태양으로 이 땅에 오신것은 력사의 대경사, 민족의 대행운이었다.

...어둠새벽 김보현할아버님께서는 만경봉으로 오르신다. 이미 무쳐놓았던 나무단을 저 내려오시려는것이였다. 사위는 아직 어둠속에 잠겨있었다. 산중턱에 거의 이르시었을 때 갑자기 앞이 환해져서 살피보니 만경봉우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나오고있었다. 할아버님께서 그쪽으로 걸



금 수 산 래 양 궁 전 광 장 에 굽 이 지 는 다 함 없 는 경 모 의 대 하

음을 다우쳐 났다란 공지에 이르니 금방석우에 툼툼한 옥동자가 앉아 만경대를 굽어보는것이였다. 하늘이 내려준 귀인이심이 분명했다. ...이것은 김보현할아버님께서 구신 꿈이였다. 그로부터 일마후 보조개를 퍼우시며 밝게 웃으시는 어르신 중손자분을 안아보시며

김씨녀사께서는 이렇게 탄성을 터치시였다. 《꼭 해님같구나!》 그때부터 만경대일가분들은 물론 마을사람들도 수령님들을 《해님》이라고 불렀다. 도서 《신군 태양 김정일장군》(1)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시며 《축복의 꽃보리안양 설레

이는 밀영에 홀날리는 눈송이들이 밀영의 귀를집창가에 소리없이 내려왔더니 신기하게도 하늘에 붉은 노을을 펼쳐놓았다. 찬란한 광채가 귀를집방안을 환히 비치고 붉은 기운이 백두산밀영에 가일렷히 승배하고 따랐는가는 그분들의 존함을 날 일자와 이를 성자, 바를 정자와 날

채광으로 차고넘치였다.》라고 씌여져있다. 누군가 말하기를 위인은 인민의 마음속에서 먼저 추대된다고 하였다. 일찍부터 우리 거례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얼마나 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그분들의 존함을 날 일자와 이를 성자, 바를 정자와 날

일자를 써서 태양으로 칭송한 사실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인민의 진실한 감정은 절대로 지어낼수 없다.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의 애국자, 회세의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이 땅의 군대와 인민의 끝없는 경모의 정은 하늘에 닿고있다. 태양의 성지에 서고보니 대원수님들의 인자하신 모습이 더욱 사무치게 어려온다고 하면서 김정숙평양직공장의 정철호는 《오늘 우리 조국이 지니고있는 높은

존엄과 우리 인민이 누리고 있는 값높은 삶은 그 어느것이나 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존함과 결부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정녕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지니신 천출위인상과 쌓으신 불멸의 업적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칭송의 이야기뿐이다. 어찌 그들뿐이라.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해외동포들도 비범한 예지와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 탁월한 령도로 민족의 분열을 하루빨리 끝장내기 위한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 민족끼리 기치높이 전진하는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주시는 대원수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눈시울을 적신다. 꼭질많은 인생행로를 걸어온 얼마나 많은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통일태양의 품속에서 두번 다시 태어나 애국애족의 값높은 삶을 빛내여왔던가.

하기에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꽃들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존함을 모시고 그분들을 우러러 피어났고 가장 진귀한 선물들도 그분들을 흠모하는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의 마음을 안고 조신으로 향하였다. 피줄과 언어는 달라도 위인을 흠모하고 따르는 인류의 마음에는 국경이 없다. 태양은 영원함의 상징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거례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로 7월의 하늘아래서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추억속에 터치는 거례와 인류의 긍지높은 고백이다.

본사기자 홍범식

통일된 강산에 천만년 길이 모시리

7월을 맞이한 이 땅에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함께 거례의 념원이 담겨진 노래가 뜨겁게 울려 퍼지고있다.

삼천리 내 조국에 해빛은 찬란하고 행복의 노래소리 넘쳐 흐르네 통일된 강산에서 인민들은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 모시고 천만년 살아가리

통일된 조국땅에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높이 모시고 천만년 살아가려는것은 우리 거례의 절절한 념원이며 의지였다.

장백의 험한 산발 눈보라 헤치며 잃었던 나라를 총대로 찾아주시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오신 어버이수령님이시다. 그이께 있어서 조국통일은 필생의 위업이였고 한생의 념원이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사의 중임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거례에게 하루빨리 통일의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누구보다 거례를 사랑하시고 조국통일을 절절히 념원하신 수령님께서 분렬의 비극을 가시기 위해 지새우신 밤, 걸으신 길은 그 얼마나던가.

온 거례와 인류의 다함없는 축원을 받으셔야 할 뜻 깊은 탄생일에도 오늘 한가지 나의 마음에 걸리는 것은 통일된 조국에서 다

같이 행복을 누리려는 거례의 념원을 풀어주지 못한것이라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공동의 숙원인 동시에 민족앞에 다진 나의 맹세이기도 하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수령님이시였다.

조국이 통일되면 자신께서는 10년은 더 젊어질것 같다고 하시면서 수령님께서 생의 전기간 친히 보아주고 비준해주시신 통일문건들은 그 얼마나던지 모른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위대한 심장의 마지막박동도 거례를 위해,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시였다.

정녕 어버이수령님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하기에 온 거례는 오늘도 통일된 강산에서 대를 이

어 위대한 수령님 모시고 천만년 살아가리라고 절절히 노래부르고있는것이다. 거례의 이 념원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계시어 반드시 실현되교야말것이다.

사상도 령도도 덕망도 품모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어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불과 남, 해외의 우리 거례는 또 한번의 백두산위인 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이 하늘아래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울것이며 통일된 강산에서 인민들은 대를 이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모시고 천만년 살아갈것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은 나라 강산에 그리움의 대하가 끝없이 넘쳐흐르는 7월이다. 드넓은 협동농장마다 김매기로 흥겨웁고 사회주의 문명국의 위용떨치며 일떠선 창조물들에서는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차고넘친다. 조국의 모습이 더욱 풍요하게 단장되고 인민들의 기쁨 날날이 커갈수록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뜨겁게 솟는 소원이 있다.

—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이 가슴벅찬 현실을 보시셨으면!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의 념원이 실현되여가고있는 오늘의 벅찬 현실을 보시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고틱을 함께 나누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있어서 언제나 인민은 자신의 스승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로동자

들을 만나시면 그들의 기쁨들은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고 농민들을 만나시면 그들과 마주앉아 농사이야기도 나누시였으며 평범한 가정을 찾으시여서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부엌의 쌀독과 찬장부터 열어보시였다. 로인들에게는 허물없는 친구가 되시고 학생소년들에게는 다정한 학부형이 되시며

서도, 하나같이 잘된 앞그루작물들을 보시면서도 언제나 인민을 생각하신 위대한 장군님.

북방의 철의 기지로부터 양떼호르는 황금산의 언덕을 넘어 배고동소리 울리는 어장을 지나 먼바다 심마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곳곳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로고가 깃들여있다. 불보다 더 뜨거운 념원

을 안고계시였기에 그이께서는 수천리 강행군길도 웃으며 헤쳐가시였고 구운 감자 몇알로 끼니를 에우시면서도 언제나 행복의 미소를 짓곤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할수록 수령님의 생전의 념원을 이 땅우에 현실로 활짝 꽃피우시려 헌신의 강행군길을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가 가슴뜨겁게 어려온다. 토지정리된 드넓은 논들과 물고기떼 옥실거리는 양어못안에

행복의 만년터전으로 더욱 아름답게 가꿔가신다. 과학자들과 학생소년들에게 안겨준 희한한 새 거리와 소년단야영소를 일떠세워주시는 그날에도, 호숫한 물고기대풍을 보시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보시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시였겠는가고 그러도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오늘 공화국의 날과 날들은 절세위인의 인민사랑의 시간으로 흘러가고있다. 통라인 민유원지의 웃음꽃도, 미림승마구락부의 말발굽소리도, 마식령스키장의 스키라라도 절세위인들의 유혼을 꽃피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이 땅우에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아질수록 절세위인들의 념원이 비긴 강성번영의 새봄은 더욱더 앞당겨질것이다.

본사기자 최대성

대원수님들께서 보시였으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문수물놀이장



룡림인민유원지



창전거리

군사적대행위를 종식시켜야

지난 6월 30일 공화국은 남조선당국에 보내는 특별 제안에서 모든 군사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단호한 결심을 온 겨레와 세계 앞에 보여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것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온 겨레의 염원을 반영한 지극히 정당한 제안이다.

나라의 평화적 통일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이다. 비록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지고 그 분열이 온 70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서로 싸워야 할 아무런 타당성도 없다. 더우기 지난 1950년대에 일어났던 한차례의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가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뼈에 사무치도록 절감하게 한 계기였다. 당시 3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북과 남은 혹독하게 파괴되었으며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부

모처자를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나 뿔뿔이 갈라져 살지 않으면 안되는 비극은 반세기 가 지난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비극적 현실을 끝장 내는 유일한 길은 평화적 통일뿐이다.

이미 북과 남은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을 통하여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나라를 통일할데 대한 원칙에 합의하고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평화통일의 원칙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지키는 데 있다. 물론 북남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군사적대행위로써 해결할 수는 없다. 군사적대행위가 가져올것은 불신과 대결의 심화이고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의 증대이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북과 남이고 민족의 통일위협이다.

오늘 북남사이에 모든 군사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평화적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 나서고 있다.

앞으로 북남사이의 교류와 접촉들이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교류와 접촉의 사전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끌어들이는 동족을 공갈하고 위협하는 행

위에 중지부를 찍어야 한다. 특히 남조선당국이 올해 8월 미국과 함께 벌리게 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계획을 취소하는것이 중요하다.

다른 문제들도 다 그러하지만 미국과 함께 벌리는 북침전쟁연습은 평화통일 원칙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만족한 위배행위인 동시에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로 되고 있다.

올해 들어 공화국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해 북침 마련되었던 화해의 분위기가 도발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으로 파탄된것이 그 대표적사례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을 조속반도체에서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미국의 반대한 무력이 서로 충돌을 마주하고 불신과 대결을 거듭하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하루아침에 부모형제, 처자와 갈라지는 생리별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상봉의 꿈을 이루어보지도

유구한 세월 한강도에서 한쪽을 이으며 살아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 때로부터 온 70년 세월이 흘렀다. 단순한 지리적개념에 불과했던 38°선이 국토분열의 선으로 이 땅에 그려지던 그때에는 그 누구도 민족분열이 이토록 오랜 세월 이어지게 되리라고 예측하지 못하였다.

나라의 분열은 우리 겨레에게 커다란 재난을 가져다주고 민족의 통일적발전이 어렵게 된 장애물 조성하였다. 방대한 인적, 물적자원이 민족공동의 복리복지를 위한 사업에 효과적으로 동원, 리용되지 못하였으며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그려진 분열선을 경계로 북과 남의 반대한 무력이 서로 충돌을 마주하고 불신과 대결을 거듭하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만만년 역사속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하나의 강도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인 우리 겨레가 아직까지 분열되어 있다는것은 민족의 수치기 아닐수 없다. 민족분열의 비극이 지속될수록 불행과 재난을 당하게 될것은 우리 민족자신이다.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민족분열의 비극

못한채 계속 우리결을 떠나가고 있다.

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의 통일을 이루어보려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꿈에도 소원은 통일》을 절규하며 항쟁의 처녀에 떨쳐나섰던 남녀의 청년학생들, 《조국통일》을 웨치며 동족과 만났다는 단 한가지 리유만으로 남조선에서 손에 쇠고랑을 차야 했던 사람들은 또 그 얼마인가.

반만년 역사속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하나의 강도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인 우리 겨레가 아직까지 분열되어 있다는것은 민족의 수치기 아닐수 없다. 민족분열의 비극이 지속될수록 불행과 재난을 당하게 될것은 우리 민족자신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북과 남, 해외 전체 조선민족의 숙원이고 이제 더이상 미룰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이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나라의 분열은 우리 민족자신의 힘으로 끝장내야 한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보다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민족의 민족적공동성이 더 크다.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하루빨리 나라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북과 남은 이미 지난 세기 70년대에 벌써 7.4공동성명을 통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공동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새 세기에 들어와 북과 남이 함께 내외에 엄숙히 선포

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의 근본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그를 구현한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진정으로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려면 누구나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일차적 공화국 국방위원회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의 3대원칙을 틀어쥐고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갈데 대한 특별제안을 발표한것은 조선반도에서 민족분열과 대결의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는것을 막고 온 겨레가 바라는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하루빨리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적 민족의 일념으로 일관된 획기적인 제안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민족을 생각하고 통일을 바란다면 공화국의 특별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하등의 리유가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 통일진군을 다그침으로써 이 땅에서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기어이 안아오야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북의 특별제안 수용하고 실천으로 남북관계 개선하라》

남조선 각계가 주장

지난 3일 서울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회원 20여명의 시민사회단체들이 《7.4남북공동성명 42쪽 남북관계개선행위 기차회견》을 가지고 남조선당국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에 따라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실천행동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리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정부)가 남북관계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안된다.》고 하면서 《42년전 7.4남북공동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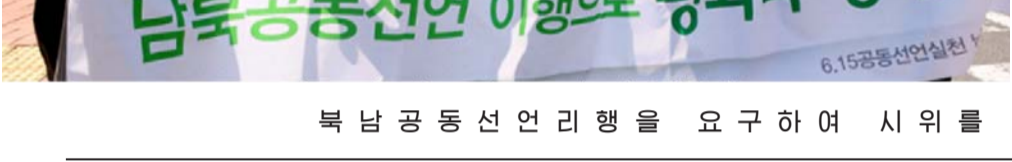
서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의 대원칙을 가슴에 새겨서 북의 특별제안을 겸허하게 수용할 바란다.》고 말했다.

전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4월 0시를 기해 상호비방 중상잔단을 제안하고 군사적대행위중지를 선제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북의 제안은 사실상 온 민족이 원하는 바이다. 7.4공동성명발표 이후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과 이후 10.4선언으로 발전하면서 구체적인 본격적인 실천이 이뤄졌지만 오늘이 모든 남북간의 합의는 지켜지지 않고있을뿐만아니라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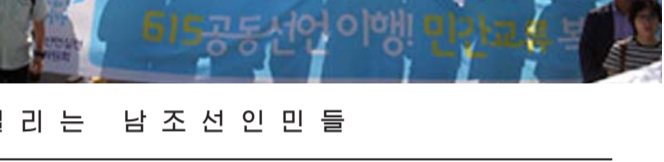
방이 묘연하다.》고 하면서 당국이 북의 특별제안을 수용할것을 촉구하였다.

오현정 통일농사협동조합 총괄사업본부장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지, 무장발종지, 불의의 군사적충돌사과방지합의는 7.4남북공동성명에 이미 명시된 내용이고 남북사이의 다방면적 제반교류를 실시하겠다는것 역시 당시의 합의사항》이라고 하면서 《북의 특별제안을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리행하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요구하여 시위를 벌이는 남조선인민들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요구하여 시위를 벌이는 남조선인민들

미국의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심양시 지부장 담화 발표

미국이 조선에서 전쟁을 도발한 때로부터 64년이 된것과 관련하여 사상보 제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심양시 지부장 권언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들은 6월 25일을 맞으며 재중동포들은 전체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춰준 전쟁도발의 원흉이며 우리 인민의 절친지친원수인 미제침략자들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하면서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15개 추종국가군대를 동원하였으며 전체 조선인민을 멸살하고 조선반도를 타고있고 위해 세군무기를 사용하며 원자탄사용까지 획책하는 특대형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미국은 여기에

어지고있다고 까뻐했다.

담화들은 미국이 고고도로 격미싸일 《THAAD》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기 위해 책동하고있는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60여년이 지나도록 외국군대에 짓밟히고 그의 군사적강점과 지배에 수모를 당하며 살아야 하는것이 결코 우리 겨레의 숙명이 아니라고 하면서 담화들은 온 민족이 미국의 전쟁책동을 단

문익환목사 북남해외공동추모행사 진행

생을 바친 늦봄 문익환목사의 생애에 대해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특히 문익환목사가 평양방문기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추진해나갈데 대해 합의한것은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확정하고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추동한 역사적계기였다는데 대해 지적되었다.

또한 문익환목사가 생전에

《만해스님 열반 70돐 북남불교도법회》 봉행

6월 29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만해스님 열반 70돐 북남불교도법회》가 봉행되었다.

법회에는 북측에서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 교직자들과 금강산 신계사, 표훈사의 승려들과 신도들, 남측에서 불교조계종 승려, 신도들이 참가하였다.

법회에서는 불교례식에 이어 연설들이 있었으며 조국통일을 기원하는 북남불교도 공동발원문이 봉독되었다.

연설자들은 만해스님 열반 70돐을 맞아 애국, 애족의 정신으로 일관된 그의 한생을 돌이켜보며 오늘에 사는 우리 불자들이 모두의 삶을 비추어보는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북과 남의 전체 불교도들은 만해스님의 뜨거운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을 이어 우리 민족끼리 6.15자주통일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삼천리강토위에 기어이 통일이

《〈세월〉 호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로동탄압 중단하라!》

서울에서 반《정부》투쟁 전개, 1만여명 참가

남조선인내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로총) 소속 노동자 1만여명이 6월 2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총궐기집회를 가지고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요구하였다.

집회에서 민주로총 위원장 신승철이 발언하였다.

그는 《세월》호참사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며 유가족들과 전체 노동자들이 흘린 눈물이 헛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1 000만명서명운동에 민주로총 조합원 80만명전원이 참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오는 7월 22일 민주로총 정치과업을 성사시키자고 그는 호소하였다.

집회가 진행되는동안 참가자들은 《(세월) 호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로동탄압 중단하라!》, 《지키자 참교육, 힘내라 전교조!》 등의 구호를 웨쳤다.

쌀시장경쟁방해 반대, 민영화 저지, 로동기분권 쟁취를 위한 시국집회가 련이어 진행되었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시위를 벌였다.

경찰들이 시위자들에게 물대포를 쏘아대며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 20여명을 강제연행하였다.

민주로총 총궐기집회에 앞서 청계광장에서는 당국의 쌀시장경쟁방해등을 규탄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집회가 있었다.

또한 공무원로조, 보건의료로조, 철도로조, 공공운수로조를 비롯한 민주총총상하로조들이 시내 곳곳에서 반인민적악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었다.

본사기자

《전교조는 정강하라》 전교조 항의투쟁 전개

서 제명하라는것은 전교조가 내걸었던 참교육의 기발을 내리라는것과 다를바 없다고 비난하였다.

로조의 모든 성원들이 현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워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결의문은 현 《정권》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조관결을 내림으로써 민주교육실현을 가로막고 지배세력의 권력유지를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려고 말악하고있다고 까뻐했다.

학생들을 옹호하며 교육하기 위한 전교조의 25년간의 노력은 결코 중단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당국의 부당한 관결을 배격하는 투쟁을 전교조강화를 위한 투쟁으로 승화시켜나갈데 대해 결의문은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전교조는 정당하다. 로동기분권 쟁취하자!》, 《전교조탄압 저지하고 참교육을 사수하자!》 등의 구호를 웨쳤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시위행진을 벌였다.

한편 이날 전교조 16개 지부 대표단들은 단체에 대한 법외조관결철폐와 교원로조법개정 등의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행하였다.

민주로총 총궐기집회에 앞서 청계광장에서는 당국의 쌀시장경쟁방해등을 규탄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집회가 있었다.

또한 공무원로조, 보건의료로조, 철도로조, 공공운수로조를 비롯한 민주총총상하로조들이 시내 곳곳에서 반인민적악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었다.

본사기자

은 김기춘이 하

를속히 권력의 자리

에서 물러날 때만이 인사참

사가 중지될수 있다고 강조

하였다.

《새로운 총리 한사람 추

천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라는 비난과 김기

춘이 재앙을 물고오는 핵심

이라는 지적이 정치, 언론

계를 비롯한 남조선 각계

서 울려나오고있다고 주장

하였다.

본사기자

은 김기춘이 하

를속히 권력의 자리

에서 물러날 때만이 인사참

사가 중지될수 있다고 강조

하였다.

《새로운 총리 한사람 추

천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라는 비난과 김기



중백로

밤물까마귀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남방기원계통의 조류가 보금자리를 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최근 남방기원계통의 조류가 보금자리를 펴 조류학자들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에서 관찰한데 의하면 남방기원계통의 동양구형조류인 중백로와 밤물까마귀가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 나무들에 등지를 틀고 몇년째 서식하고있으며 현재 그 마리수가 1,600마리이상으로 늘어났다.

다같이 황새 - 왜 가리목 왜 가리목에 속하여있으면서 백로속과 밤물까마

귀속으로 분류되는 중백로 *Egretta intermedia* (Wagler, 1829)와 밤물까마귀 *Nycticorax nycticorax* (Linnaeus, 1758)는 더운 지방의 습지에 퍼져 사는 새들이다.

일명 《검은다리백로》라고 하는 중백로는 몸길이가 58~68cm, 몸질량은 500~550g으로서 몸집은 백로류중에서 중간크기이다. 등장색이 매우 길어 꼬리처럼 늘

어졌으며 몸은 흰색이고 부리와 다리, 발가락은 검은색이다. 중백로는 모양과 자태, 색깔과 우짖는 소리, 날음하는 자세와 울음소리, 울음소리 등으로 수역과 들간의 자연 풍치를 돋구어주며 세계적으로 그 마리수가 줄어들고있어 적극 보호되고있다.

주로 밤에 활동하는 밤물까마귀는 몸길이가 58~60cm이고 몸질량은 수컷이 550g, 암컷이 440g정도이다. 목이

짧고 굵으며 뒤등수에 2개의 장식깃이 있는 밤물까마귀의 정수리와 등, 뒤목은 광택이 나는 검푸른색이며 꼬리날개는 재색이고 멧기, 이마, 뺨, 앞목, 배는 흰색이다. 부리는 누런검은색이고 다리는 노란색이다.

오랜 조류학자인 박재범은 지난 시기 남방의 더운 습지에서 번식하던 중백로와 밤물까마귀가 금수산태양궁

전 수목원에 보금자리를 펴고 집단번식을 시작했음을 조진조류상을 더욱 풍부히 하여주는 이채로운 현상이라고 하였다.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 연구자들은 최근년간 풍치수려한 대동강을 끼고있는 금수산태양궁전지구에 수종이 좋은 갖가지 나무들이 우거지고 백화만발하는 원림지대가 펼쳐져 새들의 서식에 매우 유리한 생태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지구상 방방곡곡의 온갖 새들이 여기에 날아와 보금자리를 편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일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기념특강을 진행합니다.

강의제목: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국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강의시간: 1강의

강의날자: 주제103(2014)년 7월 7일

홈페이지주소: <http://www.ournation-school.com>

전자우편주소(E-mail): schoolmanager@silibank.com

청강생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로부터 7월 7일(음력)을 《칠석》이라 하였으며 혹은 《칠월칠석》이라고도 하였다. 우리 겨례에게는 오랜 옛날부터 칠석과 관련한 《견우직녀전설》이 전해오고있다.

... 옛날옛적 하늘나라에 소를 부리며 밭을 갈며 부지런히 일하는 총각인 견우와 벼를 베어 고운천을 짜는 처녀인 직녀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고운 일썩을 익혀온 그들은 어느 하루도 빠짐없이 땀흘려 일하였으며 못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그런데 어느때부턴인지 그들은 서로 눈이 맞아 사랑의 심연속에 빠져들게 되었다. 사랑에 취하여 일하는것을 잊더니 마침내는 부지런히 일하던 일손마저 놓게 되었다.

이것을 보고 대노한 하늘나라의 옥황상제는 견우와 직녀를 불러들여 꾸짖고 나서 그들 둘을 큰 강(은하수)의 양쪽에 갈라놓았다. 그러면서 본래대로 부지런히 일하도록 하였다. 서로 헤어져 마주 바라보면서도 오갈수 없게 된 견우와 직녀는 나날이 그리운 정이 뜨겁게 솟구쳐오르는것을 금할

수 없었다.

깊은 사랑을 맺어 정을 두터이 한 그들의 가혹한 정성과 서로를 못내 잊지 못해하는 고운 마음을 헤아린 옥황상제는 한해에 단 한번 7월 7일에 땅우 세상에 사는 새들이 다 올라와 은하수에 다리를 놓게 하여 만나게 해주었다. ...

이것이 견우와 직녀에 대한 전설의 내용이다. 우리 나라 어린이들은 7월

직녀가 1년만에 만나 홀리는 기쁨의 눈물이며 만나자 곧 헤어져야 하는 리별의 아수함으로 홀리는 슬픔의 눈물이라는것이다.

견우직녀전설은 우리 나라에서 1,600년전부터 전해져 내려왔다. 덕흥리벽화무덤에 그려졌있는 견우와 직녀의 그림(벽화)은 5세기 이전부터 이 전설이 고구려사람들속에서 전해져왔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고구려에서는 일찍부터 농업을 위주로 경제를 발전시켰고 바다를 끼고있어 어업과 대외무역을 활발히 하였으며 그 필수적요구에 따라 천문학과 천문학이 발달하였다. 슬기롭고 지혜로우며 과학적탐구심이 높았던 고구려사람들은 그 귀중한 성과에 기초하여 견우직녀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엮어낼수 있었던것이다.

칠석날 해가 진 다음 퇴마루나 토방에 나와앉거나 마당에 멍석을 펴놓고 앉아 견우직녀전설을 들으며 아이들은 신비로운 하늘나라를 날아다니는 우주를 대한 지식을 넓혔고 하늘세계의 수수께끼를 파헤쳐볼 꿈을 키웠다.

본사기자

칠월칠석

7월 밤이면 이런 전설을 들으면서 밤하늘에서 견우성과 직녀성을 찾아보곤 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이 전설을 들려주면서 이날이면 세상의 까막까치들이 퍼다 하늘에 올라가 나매를 퍼서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주고 내려온다고 하면서 그 다리를 까마귀 오자와 까치 작자를 따서 《오작교》라고 불렀다. 《오작교》라는 말은 두런인이 만나는 다리, 《사랑의 다리》의 대명사이다.

칠석날에 내리는 비를 《칠석물》이라고 하였다. 《칠석물》인즉 견우와

효과성이 큰 새형의CT직류전기탐사기

최근 김책공업종합대학 자원탐색공학부에서 나라의 귀중한 지하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이용할수 있는 첨단수준의 지하자원탐사기구를 새롭게 연구개발하여 현실에 도입하였다.

일명 CT직류전기탐사기라고 불리는 이 탐사기구는 지하 150m깊이까지의 지층의 전기비저항분포와 인공분극분포를 영상화하여 광채형과 광상의 심부전망을 리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석탄, 유색금속, 지하수 등을 신속정확히 찾아낼수 있을뿐 아니라 건설물의 기반조사에도 효과적으로 쓸수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땅속에 묻혀있는 광채형과 광성광물 조성에 근거하여 광체의 탐

제모형을 그려내는 지하탐사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이 방법을 도입하면 시추 및 굴진작업을 비롯한 큰 투자를 대폭 줄이면서도 탐사정확도를 과학적으로 담보할수 있고 탐사기간이 짧아진다고 한다. 이러한 지하탐사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첨단기술분야의 하나로 되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자원탐색공학부의 교원, 연구자들은 첨단수준의 지하자원탐사 기술을 국내실정에 맞게 개발할 목표밑에 두뇌전, 기술전을 과감히 벌려나갔다.

이들은 CT탐사기술에 대한 세계적추세를 깊이 파악한데 기초하여 구조형처리소자에 의해 모든 조작을 조정, 감지

하여 결과값을 현시, 기억, 호출, 전송할수 있게 프로그래밍을 작성하고 장치들을 제작하였다. 또한 공업주파수 장비를 받지 않게 하면서도 상사-수차변환기를 리용하여 측정대역을 넓히고 분해능을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다. 하여 석탄이나 광물탐사와 채굴에서 신속성과 과학성, 실리성을 담보할수 있는 새형의 CT직류전기탐사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지하자원탐사기구는 강동지구관광림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입된 대상물에서 그 경제적효과성이 뚜렷이 검증되었으며 여러 단위의 지일수개발에서도 단단히 환용 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정, 인정미 (3)

《정들면 고향》

낮선 고향에 가서도 마음을 붙이고 오래 살면서 정들게 되면 고향이나 다름바 없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정들면 미운 사람도 고향보인다.》

정이 들게 되면 누구나 다 고향보인다는 뜻으로 곱게 보이거나 밋게 보이는것이 얼굴생김새에 따르는것이 아니라 정분이 얼마나 두터운가에 의존함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정이 있어야 기쁨도 있고 락도 있다.》

서로 정이 들고 마음이 통해야 생활에서 기쁨도 즐거움도 맛볼수 있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사화 탕평체의 유래 (3)

글 김복련, 그림 김윤일

이날 음식상에서 제일 인기를 끈것은 여러가지 음식 재료를 섞어만든 룩두목채였다. 룩두목채는 기름진 돼지고기와 하둡하둡한 룩두목, 생선하면서도 향긋한 미나리의 독특한 맛이 그대로 살아나는가 하면 여러가지 음식감들이 짹짹하면서도 매운사하고 새콤하면서도 달콤하여 갈철맛이 도는 조건장에 하나로 어우러지니 그 또한 새로운 맛이였다.

돼지고기라면 심리를 뒤편만이라도 룩두목에 섞여있는 돼지고기는 나무라지 않고 집어갔고 룩두목은 슬슬해서 먹을 맛이 없다면 룩두목은 국수오리처럼 가늘고 하르르한 룩두목채만은 누가 볼새라 게 눈 감추듯 했다. 벌써 여러날째 속이 트직해서 밥상을 멀리하던 말이는 룩두목채를 먹으니 목은 체기까지 속 내려갔는지 점심을 맛있게 먹였다.

아들들의 그 모양을 호호하게 바라보며 정로인은 저가락을 늦대짐에 가져왔다.

《거참, 룩두목이 돼지고기와 이렇게 잘 어울릴줄은 정말 몰랐는걸...》

정로인은 감동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며 머리를 찾았다. 남정네들이 식사하

는 사이 누렁이를 다 먹고난 쌍가매가 산아래 샐터에 내려가 샘물 한통이를 길어 가지고 돌아왔다. 쌍가매는 물사발을 정히 두손에 받쳐 들고 시아버지에게 드렸다. 정로인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머느리에게 말하였다.

《오늘 점심은 정말 별 맛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별식을 만들 생각을 다했느냐?》

그러자 쌍가매는 두볼에 흥조를 띄우고 나직이 대답하였다.

《사실은... 식성이 각각인 집안식구들의 구미에 맞을 그런 식찬을 만들수는 없을가 하고 생각하던 나머지 한번 만들어본것이옵니까.》

《그래?! 너의 지극한 정성이 이렇듯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내게 했구나. 참 용라.》

이때 탁배기 한사발에 온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들째가 싱글빙글 웃으며 말했다.

《이런 룩두목채라면 난 돼지고기를 제쳐놓고 먹었어오. 안 그래요, 형님?》

들째의 물음에 만이가 열려진 입을 다물지 못하며 맛장구를 쳤다.

《나두 룩두목채에 들어간 돼지고기라면 사양하지 않을

란다.》

《하하하.》

《허허허.》

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를 귀전에 들으며 쌍가매는 두볼에 상국이 미소를 지었다.

《확실히 음식맛을 돋구는 손은 따로 있는가봐요. 형수님이 만든 음식은 뭐든지 다 맛있거든요.》

음식그릇을 주섬주섬 거두는 쌍가매를 바라보며 들째가 하는 말이였다. 그 말에 정로인이 머리를 저었다.

《그런게 아니라. 그건 네 형수가 집안사람들을 위한 정성이 하두 지극하니 음식맛도 절로 나는거란다. 무슨일이든 마음먹기탓이라는 말도 있는것처럼 음식맛은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지만 또한 먹는 사람에게도 달려있거든.》

《아버지, 그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음식맛이 먹는 사람에게 달린다니!...》

처음 듣는 소리라든가 만이도 의혹을 감추지 못했다.

《아무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해서 그것만 주장한다든가, 또 한가지 음식만 편식을 하게 되면 건강에도 좋지 않거니와 집안의 화목에도 지장을 주게 되는 법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걸 꼭 명

심해야 한다.》

《알겠어요, 아버지.》

두 아들은 정로인의 말에 심중한 기색으로 대답하였다.

그때로부터 정로인네는 해마다 봄철이 오면 룩두목채를 만들어 먹는것을 관례로 삼았다. 특히 온 마을이 힘을 합쳐 우물을 손질하거나 뉘집 초가이영을 다시 올린 다든가 할 때면 의례히 룩두목채를 음식상에 올리곤 하였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 조선봉건왕조시기 정조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한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무진에를 다 썼었다. 하지만 그 역시 당파중의 한 갈래인 노론파의 폐임에 빠져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왕세자였던 장조(정조의 아버지)를 본의아니게 살리주에 가두어 죽게 했던것이다. 당파싸움은 궁실안에서의 내부분쟁에 그친것이 아니라 장차 이 나라의 존망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로 되었다.

정조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할아버지 영조의 뜻을 이어 《탕평책》을 나라의 시책으로 제기하였다. 그는 자

기 방을 《탕평정실》이라 이름짓고 나라의 권력이 어느 한 파에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극력 통제하였다. 그러나 그의 의도대로 당파싸움이 험사리 없지 않았다.

어느해 봄 삼월삼짇날이었던 《탕평책》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끝)



옛날 우리 령통과 가정의 레때에는 큰 나라의 질들 상의 배경에는 병풍이 있었다.

보통병풍은 앞면에 그림을 그려서 글자를 썼다. 아이의 돌잔치때든, 결혼식, 생일 예술품 같은 가정의 레때에는 큰 나라의 질들 상의 배경에는 병풍을 세워놓았다.

그러나 상제레때에는 흰종이를 발라서 만든 병풍을 세워놓고 그것에 의례를 치르었다고 한다.

본사기자

에로부터 우리 겨례에게는 일상생활에서 깨끗이 지켜온 자기의 고유한 인사레법이 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인사법은 절이다.

조선전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허리를 굽히거나 다리를 숙여 존경과 레의를 표시하는 인사행위이다.

조선전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다. 옛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사람들은 굽어 엎드려 절을 하였는데 한나라는 위로 뺨친다고 하면서 부여와 다르다고 하였다.

이 자료에서 고구려와 부여사이에 레절이 다르다고 한것은 부여에서는 굽어엎드려 손을 바닥에 짚고 절을 하였는데서 나온 말이다. 고구려사람들이 부여사람들과 달리 다리를 뒤로 뺨치고 절한것은 평소에 웃어른들에게 하던 절을 말하는것이 아니다.

옛 력사문헌인 《삼국지》

에로부터 우리 겨례에게는 일상생활에서 깨끗이 지켜온 자기의 고유한 인사레법이 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인사법은 절이다.

조선전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허리를 굽히거나 다리를 숙여 존경과 레의를 표시하는 인사행위이다.

조선전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다. 옛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사람들은 굽어 엎드려 절을 하였는데 한나라는 위로 뺨친다고 하면서 부여와 다르다고 하였다.

이 자료에서 고구려와 부여사이에 레절이 다르다고 한것은 부여에서는 굽어엎드려 손을 바닥에 짚고 절을 하였는데서 나온 말이다. 고구려사람들이 부여사람들과 달리 다리를 뒤로 뺨치고 절한것은 평소에 웃어른들에게 하던 절을 말하는것이 아니다.

옛 력사문헌인 《삼국지》

에로부터 우리 겨례에게는 일상생활에서 깨끗이 지켜온 자기의 고유한 인사레법이 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인사법은 절이다.

조선전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허리를 굽히거나 다리를 숙여 존경과 레의를 표시하는 인사행위이다.

조선전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다. 옛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사람들은 굽어 엎드려 절을 하였는데 한나라는 위로 뺨친다고 하면서 부여와 다르다고 하였다.

이 자료에서 고구려와 부여사이에 레절이 다르다고 한것은 부여에서는 굽어엎드려 손을 바닥에 짚고 절을 하였는데서 나온 말이다. 고구려사람들이 부여사람들과 달리 다리를 뒤로 뺨치고 절한것은 평소에 웃어른들에게 하던 절을 말하는것이 아니다.

옛 력사문헌인 《삼국지》